

한국형 데스밸리, MOT에서 찾자

| 글 | 박재원 중앙일보 경제담당 부국장 kjwon@joongang.co.kr |

과 학기술중심국가라는 국정목표아래서 경제 성장 엔진을 찾으려는 논의가 활발하다.

우선은 당장 갖고 있는 기술을 써서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기업·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술지도를 그리게 하고, 서로 노하우를 털어 놓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연구(스톡)와 개발(플로우)간의 상승효과가 나오길 기대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면 차세대 기술과 신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에 필요한 인재가 길러지는 것도 이런 과정의 산물일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처한 기술산업의 경쟁환경이 이같은 선순환을 쉽게 용납하지 않게 돼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980년대 미국이 경험했던 '데스 밸리'(죽음의 계곡)와 같이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당시 미국은 기초연구와 사업추진단계에선 투자가 활발했지만 그 사이에 낀 사업화에는 돈이 안가 연구 결과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상이 만연했다. 이것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고 해서 '데스 밸리'라고 했던 것이다. 미국이 산업경쟁력 강화책을 통해 이를 빠져 나오는데 10년 가까이 걸렸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은 기초연구부터 응용연

구, 개발연구 등 선형으로 이어지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제품혁신)을 근간으로 하는데 비해 한국과 일본은 고품질과 저비용을 실현하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생산방법 혁신)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와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는 일본과 아시아 후발 개도국들 사이에 끼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 의한 경쟁우위를 급속히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지식경제화를 진행시키면서 이노베이션 경쟁을 선도하고, 종래의 산업구조와 산업조직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쉬지 않고 펼치고 있는 모습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이런 변화를 방해하는 '한국형 데스 밸리'를 빨리 타 넘어야 한다. 예컨대 기업은 사원마다의 독창성을 높이면서 경쟁력을 붙여주는 비즈니스모델을 전략으로서 확립할 수 있고, 정부는 독자기술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의 독립을 촉진시키는 등 인적자본을 최적의 상태로 재배분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대학·정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하고 그 바탕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키워낼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기술통이다 사무통이다 혹은 이과다 문과



다 하는 단순 분류에 기초해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점에서 지난 10여년간의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산학계가 올해를 'MOT 원년'으로 선언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MOT(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기술경영)의 연원은 지난 80년대 중반 미국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빌 밀러교수가 개설한 기술경영강좌이다. 지금은 MIT 등 주요 대학들이 다 나서고 있지만 90년대 이후 미국의 이노베이션에 큰 공헌을 했다. 미국경제가 80년대 일본에 추월당했다가 90년대 재역전하는 드라마의 한 복판에 MOT가 자리잡고 있었다.

일본은 경제 재생과 경쟁력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수단으로 MOT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MOT 교육내용은 첨단기술에 관한 매니지먼트 수법을 비롯, 제품개발, 생산관리, IT(정보기술)전략, 글로벌경영, 지적재산권전략 등 현대경영의 리버럴 아츠(교양과정)이다.

특히 기업경영에서 기술과 경영의 두바퀴를 균형 있게 취하긴 어렵다. 첨단기술영역은 말할 것도 없이 매일매일의 경영에 있어서도 지식과 스킬이 증가일로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교육으로서의 MOT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한 사례로 오는 9월 일본 기업연수 전문기관인 사이콤 인터내셔널사가 MIT 공과대학과 손잡고 개설하는 MOT 교육사업이 있다. 도쿄 시내에서 열리는 강좌에서 기초를 배운후 MIT에서 2주간 집중강의를 받는 것으로 돼있다.

기업의 기술계, 관리직, 간부후보는 물론 공무원과 대학교수들도 대상에 들어있다.

이 코스는 기초프로그램(이그젝티브MOT프로그램)에서 전략적기술경영론, 경영재무론 등을 배운다음 MIT에 가서 집중 프로그램으로 SCM(서플라이체인 매니지먼트)전략론,창업론등을 배운다.

현재 일본에선 도쿄대학을 필두로 와세다, 히토츠바시, 쓰쿠바대학 등이 이 학연사업으로 MOT교육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기업체에선 오사카 가스등이 작년부터 외부에 개방하는 사내대학을 열고 있다.

기존 교육체계와의 융합과 기술자교육인증제도를 활용해 차세대를 담당할 폭넓은 인재를 키운다는 게 이들의 공통 목표다. 이제는 경험하면서 교육하는게 아니라 체계적인 기술경영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인식에서다.

우리도 한국형 데스밸리를 벗어날수 있는 지혜를 MOT에서 찾아봤으면 한다. ㉔